노사발전재단 Korea Labor and Employment Service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7.(화) 16:00 (2026. 11. 18.(수) 조간)

중장년, 일과 삶이 있는 녹색지대를 걷다

- 노사발전재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장년 산림복지 분야 경력 지원 맞손 -
- 일자리 정보·경력 설계·직무교육 등 5대 과제 협력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김종남)은 11월 17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관에서 중장년층의 산림복지 분야 경력 전환과 생애 경력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자격 취득자와 전문업 종사자 가운데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자연 속에서 건강을 돌보며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나누는 가치 중심형 일자리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중장년층의 수요와 산림복지 분야의 고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중장년 구직자의 경력전환을 지원하고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산림복지 분야의 직무탐색과 현장 체험 등 기존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년의 도전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 창출로 이어지도록 5대 핵심 협력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중장년 대상 산림복지 일자리 정보 제공 ▲ 맞춤형 경력 설계 및 직무교육 ▲ 산업 수요 기반 일자리 발굴 및 기업 연계 ▲ 산림복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일터 혁신 ▲ 중장년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 홍보와 행사 등 지역 일자리 기관과 연계하여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인지도 제고를 추진한다.

한편,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과 중장년 고용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산림복지 분야는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청, 그리고 중장년이 가진 풍부한 사회적 경험이 가장 잘 융합할 수 있는 중장년 적합 일자리”며, “재단이 축적한 중장년 고용지원 역량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전문 인프라가 만나 중장년에게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은퇴를 앞둔 중장년들에게 안전하고 가치 있는 ‘녹색지대’ 일자리의 길을 여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내일센터	책임자	센터장 윤지연 (042-489-3822)
		담당자	책임컨설턴트 최정윤 (042-489-38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